

월요객석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면허 갱신의 상식

면허는 대부분 기한이 차면 갱신하는 과정을 밟는다. 자동차 운전면허의 경우에 일정주기마다 신체검사를 해 운전 가능여부를 가리고 결과에 따라 갱신해 준다.

원자력발전소도 일정기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운영허가)를 받고 운전한다. 기간이 만료되면 면허를 갱신하는 절차를 밟는다. 면허 갱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이다.

2017년 1월 8일 현재, 전 세계에 운전되고 있는 원전 448기중에 288기가 31년 이상 운전되고 있으며 이중에 40년 이상 운전되고 있는 원전은 98기나 된다.

일본의 간사이 전력회사가 운영하는 다카하마 원전 1.2호기도 작년 2월에 새로운 규제기준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어 60년까지 운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소 면허갱신의 경험은

있다. 고리1호기의 경우 1차 30년 면허기간을 마치고 면허가 갱신되어 10년 더 운영하고 작년에 폐쇄되었다.

더구나 작년 12월 말에 발표된 8차 전력수급계획은 우리나라 모든 원전의 면허갱신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원자력발전소의 면허갱신은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이다. 기술적 경제적인 검토를 통해 면허갱신 여부를 가리는 사회가 바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다.

경제산책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최근 달력으로 본 '2018 휴일 총정리'라는 자료를 내었다.

자료에 따르면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인 2018년도 지난해처럼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는 없지만, 휴일 수는 119일(법정 공휴일 69일)로 작년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다음 달인 2월에는 설날연휴가 4일(15~18일)간 이어진다. 여기에 앞뒤로 연차를 쓰면 휴가는 6일로 늘어나게 된다.

3월에는 삼일절이 있다. 올해는 삼일절이 목요일이어서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4일간 휴일

을 즐길 수 있다. 4월에는 특별한 휴일이 없지만, 다음달인 5월에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이라는 연휴가 있다.

10월에도 개천절과 한글날이 기다리고 있다. 10월에도 연차를 적절히 활용하면 최대 7일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6월~8월까지의 여름 휴가이외에 특별한 연휴가 없다. 대신 9월에는 긴 추석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12월에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다. 성탄절이 화요일이어서 월요일 연차를 내면 4일간의 마지막 겨울휴가를 즐길 수 있다.

결국 휴가를 제대로 즐기려면 연휴 기간에 연차를 적절히 활용하라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이다.

달력으로 본 '2018 휴일 총정리'

정형석 기자 azar76@

社說

국고 손실 막대한 해외자원 개발...책임 물을 수 있나

지난 정부에서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자원의교에 사활을 걸었던 기업들이 빚더미에 앉으면서 기업의 생존을 걱정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 자료를 종합해 보면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나선 공기기업들은 투자한 돈의 38%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이들 3사가 투자한 금액은 총 406억 5000만 달러, 회수한 금액은 이 중 155억 1400만 달러다.

MB정부 당시 자원 공기기업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원개발 성과를 홍보했고,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해외 자원개발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등 이를 독려했다.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자원개발을 통해 자부심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권장할 사안이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 매몰되어 경제성은 뒷전이고 성과에 매달렸다.

한때 해외자원개발 중심의 공기기업으로 세계 20위권 자원기업을 목표로 했던 광물자원공사는 이제 존립을 걱정할 처지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7년 103%였던 부채비율이 2015년 6905%까지 치솟았고 2016년 이후로

는 자본잠식으로 부채비율을 산출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2017년 상반기 기준 광물자원공사는 5조7845억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만 1조2199억원에 달한다.

부실한 자원개발에 대한 정권차원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박근혜 정권때도 정쟁의 대상이 됐다.

당시 해당 기업의 CEO들이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나면서 자원의교 관련 비리와 손실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에서 '해외 자원개발 TF'까지 만들어 원점에서 철저히 검토를 하겠다고, 지켜 볼 이지만, 부실한 경영과 무분별한 사업투자로 막대한 혈세를 날린 책임도 필요하다.

당시 정치적 결정에 의해 허수아비 공기기업 사장들이 타당성 검토없이 이를 수행했다면 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의 직원들은 구조조정의 칼날 위에서 하루도 편한 날 없이 지내고 있는데, 당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것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부실의 원인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자원개발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세워야 한다.

Table with publication details: 전기신문 electimes.com, 1964년 5월 18일 창간 (주3회) 등록 서울, 가50118, 사장실, 부사장실, 편집팀, 영업팀, 구독료, etc.

Advertisement for construction services: 공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면허 양도 후 공법인 양도양수 가능합니다, (주)건설뱅크 http://www.clbank.co.kr

Advertisement for (주)유진M&A: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분할, 합병, 신규등록,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 기업진단, 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일반, 전문건설업 신규 매매 정리 문의 환영

Advertisement for electrical equipment: 계측기 및 1, 2종 전설법정공구 소방면허 시설감리 전기 건축감리 장비 전문, YOKOGAWA, MIZUMI, (주)현대전기계측기